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국역 鄉藥集成方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Oriental Medicine Terminology of North and South Korea

이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ahadew@hanmail.net

Kyung-Mi Lee, Dept. of Lib. and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한의학 용어의 상이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북한에서 각각 국역된 향약집성방의 용어를 鍼灸目錄, 病門, 病症, 處方, 鄉約本草, 단위, 신체부위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한자어, 두음법칙 등의 경향과, 북한의 말다듬기, 두음법칙의 무시 등의 경향으로 상당한 용어상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서론

남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의서들을 번역 출판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에서 각각 국역되고 있는 용어들은 서로 상이하여 남북한이 한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남북한 한의학 용어의 상이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서 각각 국역하고 있는 한의서의 용어들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본고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국역하고 있는 향약집성방에서 한의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鍼灸目錄, 病門, 病症, 處方, 鄉約本草, 단위, 신체부위 등을 중심으로 한의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향약집성방은 총 8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한의학 용어의 상이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학부문인 제1권~제76권 중 제1권~제29권에 포함되어 있는 病症, 處方, 단위, 신체부위를 비교·분석하였고, 약학부문인 제77권~제85권에서는 향약본초개론의 諸品藥石炮製法도에 열거된 본초명과, 향약본초각론의 上·中·下品 약재 중에서 上品에 속하는 본초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향약집성방 개요

2.1 원전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은 1431년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俞孝通, 전의감정 盧重禮, 동부정 朴允德 등이 세종의 朝命을 받아 1433년 6월에 완성하였고, 동년 8월에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나누어 간행되었다. 그 뒤 1478년에 복간되었고, 1488년에 향약본초를 抄하고 언해로 간행하여 서민들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1633년에는 훈련도감에서 소환자로 重刊하였는데 현존하는 책들은 대개 이 중간본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현대식 활자본은 1935년 杏林書院 李泰浩가 새로 조판하여 발간한 것이다(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1989, 鄉藥集成方譯序).

향약집성방은 총 85권 3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두에 權探의 서문과 향약집성방 총목록이 있고, 다음 장에는 <資生經>으로부터 채록한 258종의 침구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제75권까지는 의학부문으로 모든 질병을 총 57綱門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 959종의 병증을 소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冒頭에 인용출전을 명시하고 病論 및 方藥과 鍼灸法을 논하였다. 약학부문인 제76권~제85권까지는 향약본초를 개론과 각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론은 다시 指南總論과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諸品藥石炮製法度로 나뉘어진다. 指南總論에서는 처방법과 조제법, 복용법, 용량, 약을 쓰는 방법, 약을 술에 씻거나 말리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諸品藥石炮製法度에서는 211종의 약재를 열거하고 제법에 따른 특성을 논하였다. 각론에서는 총 703종의 약재를 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米穀, 菜部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上·中·下品으로 분류하였고 약재에 대한 藥性, 藥米, 效能, 炮製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약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법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역대의 소실된 의서의 내용을 일부 분일지라도 상고할 수 있는 문헌이며 유능한 의사들의 경험방과 민간에서의 묘방·비방·속방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임상 활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方書이다(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1989, 鄉藥集成方譯序).

2.2 남북한 국역 향약집성방

남한의 <국역 향약집성방>은 처음 永林社가 국역하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에게 감수교열을 의뢰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1989년에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진 辛民教, 朴旻, 孟雄在 등에 의하여 재번역되어 출판되었다(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1989, 鄉藥集成方譯序).

남한의 향약집성방은 상·중·하 3권으로 출판되었는데, 상권의 권두에는 原序와 그 대역, 도량형대조표와 원전 85권의 권별총목차·綱門총목차, 침구목록 색인을 차례로 실었고, 이어서 침구목록과 제1권~제29권까지 수록되어 있다. 중권에는 제30권~제62권까지 수록되었으며, 하권에는 제63권~제85권까지 수록하고, 뒷부분에 역대(중·한국)방의서편람·처방색인·본초색인 및 발문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 속에 인용출전을 명시하였고, 출전 이외의 참고문헌은 < >, 인명은 「」 속에 기록하였으며, 난해한 용어, 이명 및 따는 貫用語 또는 보충설명을 () 속에 넣어 解得에 용이하도록 국역하였다(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1989, 凡例).

한편, 북한의 향약집성방은 1985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하여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되었고, 이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행물 해외대행사

인 구월서방과 간행물 상호공급에 관한 약정에 의해 1993년에 남한의 일월서각을 통해 영인되었다.

북한의 향약집성방은 총 5분책으로 출판되었는데, 1분책에는 침뜸목록과 제1권~제18권까지, 2분책에는 제19권~제36권까지, 3분책에는 제37권~제53권까지, 4분책에는 제54권~제75권까지, 5분책에는 제76권~제85권까지 수록하였다. 1분책 마지막에 침혈찾아보기·처방찾아보기·주해찾아보기를 주었으며, 2, 3, 4분책 마지막에 처방찾아보기·주해찾아보기를, 5분책 마지막에 동약찾아보기·주해찾아보기를 첨가하여 책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배열되어 있는 자모의 순서는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원작내용을 살리면서 한자말을 가능한 한 현대 우리말로 풀어쓰고 동약법제법(諸品藥石炮製法度의 북한역)은 모두 우리말로 풀어썼다. 또한, 고유한 한의학 용어들과 일부 별명, 약초명, 종교적인 어휘들은 풀어쓰지 않고 한자말 그대로 번역한 다음 필요한 부분에 주해를 달아 설명하였고, 병명, 약초명은 다듬은 말뭉음, 현대조선말사전, 조선약전에 준하여 다듬었다. 그리고 인용한 책이름은 [] 안에, 법제법과 보충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 속에 넣었고, 주해는 *로 표시하였다(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1993, 일러두기). 또한, 북한에서는 분책마다 우리말로 된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실었고, 향약집성방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3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3.1 鍼灸目錄

향약집성방에는 <資生經>으로부터 채록한 침구명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남한에서는 이를 <침구목록>이라 하였고 북한에서는 <침뜸목록>이라고 하였다.

침구목록에 수록된 총 258개의 침구명 중 남북한간에 서로 상이한 용어는 31개로, 상이한 내용은 대부분 한자의 음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데 있다.

첫째, <표 1>과 같이 臑를 남한에서는 「수」로, 북한에서는 「유」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가 19개나 조사되었다.

<표 1> 남북한 침구명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膽腑(담수)	담유	膽腑(담수)	비유
胃腑(위수)	위유	三焦腑(삼초수)	삼초유

둘째, 두음법칙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한 경우로 10개가 조사되었는데, 列缺(열결)→렬결, 勞宮(노궁)→로궁, 蠡溝(여구)→려구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天柱를 남한은 「천주」로, 북한은 「신주」로 각각 번역하였고, 「膈會(노회)」가 북한에서는 「」모음 역행 동화로 인해 「膈會(너회)」로 기술되었다.

3.2 病門

향약집성방은 1권에서 75권까지 모든 질병을 총 57개의 병문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남북한간에 서로 상이한 병문은 29개로, <표 2>와 같이 남한은 한자와 그 음을 병기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대부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일부는 한자의 음도 병기해 주었다.

<표 2> 남북한 병문 비교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요통문(腰痛門)	허리아픔문	현훈문(眩暈門)	머지럼증(현훈)문
심통문(心痛門)	기슴앓이(심통문)	구토문(嘔吐門)	게우기문(구토문)
구설문(口舌門)	입과 혀문	저해문(諸瘥門)	여러 가지 기침문

남한의 風門, 濕門, 眼門, 鼻門 등이 북한에서는 풍병문, 습병문, 눈병문, 비병문 등으로 번역되었고, 남한의 黃病門과 折傷跌撲門은 북한에서 각각 황달병문, 절상과 타박문으로 번역되었다. 병문에서는 남북한 두 용어간에 음절 순서가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예: 산난문→난산문).

3.3 病症

향약집성방은 57개의 병문에 해당되는 병의 증상을 959종의 소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은 傷寒門에

해당하는 병증의 예로 남한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풀어쓰고 있으며, 특히 () 속에 원전 병증을 한자 그대로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있는데, 남한에서 생소한 용어들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즉, 구토(嘔吐)→게우기, 골절(骨節)이 번통(煩通)하다→뼈마디가 달다, 요각(腰脚)이 연급(孿急)하다→허리와 다리가 가드라들다, 건망증→잊음증, 숨이 가쁘다→숨결이 받는다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병증문 비교에서는 <표 3>과 같이 북한에서 한자어로 쓰고 있는 병증을 남한에서 오히려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경우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는데, 북한의 '상한섬어', '상한두통' 등은 한자 없이 단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남한은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지만 북한은 숫자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데 '다섯가지 요통', '九竅'를 북한에서는 '5가지 허리아픔', '9규'로 표기한다.

3.4 處方

향약집성방은 병의 증상에 따라 총 10,706가지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의서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먼저 처방명을 쓰고 그 처방이 어떠한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처방에 필요한 약재의 종류와 양을 나열하고, 그것을 조제하고 복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표 4>와 같이 모든 처방명에 한자와 한자음을 병기해주었고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처방명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있다.

남한의 처방명은 어려운 한자어로 씌어져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 북한에서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있어 일반인들도 처방명을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3> 남북한 병증 비교(상한문)

병문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상한문	傷寒 때 心腹이 痞滿한 症狀 (傷寒心腹痞滿상한심복비만)	상한병에 명치밑이 더부룩하고 그득한것
	傷寒 때 心腹脹痛의 症狀 (傷寒心腹脹痛상한심복창통)	상한병에 명치밑이 불러오르면서 아픈것
	傷寒으로 鬢소리하는 症狀 (傷寒鬢聾상한당어)	상한섬어
	傷寒에 머리가 아픈 症狀 (傷寒頭痛상한두통)	상한두통
	傷寒 때 膿血이 나오는 痢疾의 症狀 (傷寒下膿血痢상한하농혈리)	상한병에 피고름을 누는 리질이 생기는것
	傷寒 때 숨이 차는 症狀 (傷寒喘상한천)	상한천식

<표 4> 남북한 처방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松葉浸酒(송엽침주)	솔잎담근술
牛蒡鱗艇(우방박정)	우영갈국수
粟米粥(속미죽)	좁쌀죽
靑頭鴨羹(청두입갱)	오리국
昆布羅法(곤포획법)	다시미곰국
黃雌雞靛鮑(황치계흔돈)	누렁임탕만두

그러나 북한이 모든 처방명을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표기만 해놓았을 뿐 한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한자어 자체가 고유어로 굳어져서 구태여 우리말로 풀이할 필요가 없는 용어들이다(김정숙 1999). 이러한 용어에서는 남한의 두음법칙과 북한의 'ㅣ'모음 역행 동화, 전설 모음화 등으로 인한 용어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표 5>와 같이 동일한 한자에 대한 음독이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한자어로 씌어진 남북한 처방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蒼耳浴(창이욕)	창이욕
馬兜鈴湯(마두령탕)	마도령탕
香薷散(향유산)	향유산
冬瓜羹(동과갱)	동아국
藥耳煎(이음전)	약용전

3.5 鄉藥本草

향약집성방의 76권부터 85권까지는 향약본초개론과 향약본초각론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개론의 諸品藥石炮製法도에 열거된 211종의 약재와 각론에 열거된 703종의 약재는 모두 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米穀, 菜部로 구분되어 있다. 본초명 비교에서는 남북한이 향약본초개론과 각론에 따라 용어를 표현하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향약본초개론의 諸品藥石炮製法도에 열거된 남한의 본초명은 한자와 그 음이 병기되어 있고, 북한의 본초명은 대부분 순우리말로 풀이되고 있으며, 일부는 해당 한자의 음을 병기하고 있다.

남북한의 본초명 비교에서는 한자어로 씌어진 남한 본초명에 대응되는 순우리말이 북한의 본초명과 동일 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은 한자어로 씌어진 본초명에 대응하는 남한의 순우리말과 북한 용어를 비교한 것으로, 남북한이 동일한 의미 또는 용

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남북한의 향약본초개론 비교

본초명	남한 국어 사전의 정의	북한 용어
菟絲子(토사지)	말린 새삼의 씨. 새삼씨	새삼씨
瞿麥(구맥)	패랭이꽃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패랭이꽃
黃芩(황근)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 속서근풀	속썩은풀
薺仁(의이인)	울무씨	울무씨(의이인)
昆布(곤포)	다시마	다시마(곤포)

출처: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표 6>과 같이 모든 본초명을 남북한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車前子'와 '茵陳'의 경우, 북한에서는 '길짱구씨'와 '생당썩'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질경이씨'와 '사철썩'이라는 용어로 익숙해져 있고 남한의 국어 사전에 '길짱구씨'와 '생당썩'은 '질경이씨'와 '사철썩'의 북한말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북한의 본초명이 남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瀟蘆'는 북에서 '뽕죽채'로 번역되고 있는데, 남한의 국어 사전으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누로'는 절굿대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뽕죽채'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정의되고 있다. 또, '郁李仁'의 경우도 북에서는 이스라치씨로 번역되었으나, 남한에서 '옥리인'은 산앵두의 씨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스라치(이스라지)씨'는 그와 전혀 다른 의미인 장미과의 관목으로 정의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된다.

다음은 향약본초각론으로 남한에서는 人部 항목에 亂髮(저절로 빠진 머리카락), 人乳汁(사람 젖), 人屎(사람의 마른 똥), 人溺(오줌), 溺白涎(오줌버께), 人口中涎及唾(사람의 침), 懷妊婦人爪甲(妊婦의 손톱), 天靈蓋(오래된 사람의 骸骨) 등을 수록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도 북한에서 그 내용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향약본초각론에 수록된 남한의 본초명은 한자와 한자의 음, 순우리말이 병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본초명은 <표 7>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본초명을 한자어로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어 그 자체가 이미 고유어로 굳어진 것으로 남한 역시 북한과 동일한 한자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북한의 본초명이 순우리말로 풀이되고 있어서

<표 7> 남북한의 항의본초기록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예		예	
한자어 (순우리말)	石鐘乳 석종유(돌고드름)	한자어	석종유
	海獺 해달(바다수달)		해달
	雁肪안방(기러기 기름)	순우리말	기러기기름
	鵝毛난백(계란 흰자위)		닭알흰자위
	松實송실(솔씨)	순우리말 (한자어)	솔씨(송실) 무우(래복근)
	萊菔根 내복근(무우)		

본초명에 대한 남북한의 순우리말 비교가 가능한데, 塊根괴근(회화나무 根)→회나무뿌리, 牛乳우유(쇠젖)→소젖, 鵞毛아모(거위 털)→게사니털, 鵝白난백(계란 흰자위)→닭알흰자위 등과 같이 남북한의 용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남북한의 띄어쓰기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남한의 ‘검은 수탉 고기’, ‘검은 참깨 기름’ 등은 북한에서 ‘검정수탉고기’, ‘검정참깨기름’ 등으로 붙여쓴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자어와 순우리말을 병기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한자어와 순우리말을 배열하고 있는 순서만 다를 뿐 한자어와 순우리말 모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자어와 순우리말 중 남북한이 각각 어떤 용어를 표준어 또는 문화어로 삼고 통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초명은 단지 한의학 분야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로, 남북한 용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 이외에 본초명의 순우리말을 고찰해 볼 수 있으므로 본초명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3.6 단위

향약집성방은 처방에 필요한 약재를 조제하고, 복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약재의 무게, 길이, 용량 등을 나타내는 도량형 단위들을 사용한다. 남한은 모든 단위명을 한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표 8>과 같이 우리말로 다듬어 쓰고 있다.

<표 8> 남북한의 단위 비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根	개	種鉢	종발
丁	쪼각	陰處	지개미
抄	구기	子	쪼
文	일	專	덩이
壺	대	椀	시발

북한에서는 한자를 혼동하여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升(되), 斗(말), 撮(자밤), 寸(치), 尺(자), 丸(알), 盞(잔), 匙(숟가락), 把(묶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남한에서 한 가지의 한자어로 쓰고 있는 단위명을 북한에서는 약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片→꼬투리·쪼·잎·쪼각, 粒→꼬투리·알·개, 枚, 條→알·개·마리·대로 번역된다. 그 외에도 알약의 크기를 표시하는 용어, 芡實대 크기, 梔子 크기 등을 북한에서는 ‘가시련밥만하게’, ‘벽오동씨만하게’와 같이 순우리말로 다듬어 쓰고 있다.

무게를 지칭하는 단위에서도 <표 9>와 같이 남한은 척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미터법을 적용하여 g 또는 kg으로 계산하여 주었고, 단위를 붙이지 않고 단지 숫자만 주고 있다.

<표 9> 남북한의 무게 단위 비교

단위	남한	북한	
무게 (g, kg)	兩	1	40(g)
		2	80(g)
	錢	1	4(g)
		2	8(g)
	斤	1	600(g)
		2	1.2(kg)
무게(g, kg) 길이(cm)	分	1	0.4(cm) 10(g)
		2	0.8(cm) 20(g)

3.7 신체부위

향약집성방에 수록된 신체 관련 용어들은 전문용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상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항목과 달리 남북한의 신체부위명은 이질화가 심각한 편이 아니다.

북한에서 표기되는 신체부위명의 특징은 대부분 이전에 연구된 북한용어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풀이되고(예: 尾骨→꼬리등뼈, 尿道→오줌길, 胛骨→어깨뼈, 季骨→마지막 갈비뼈), 남한에서 평음으로 표기되는 용어들이 북한에서는 경음으로 표기되는 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예: 눈썹→눈섭, 팔뒤꿈치→팔뒤꿈치, 이빨→이발).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데, 그 예로 窺구멍→코구멍, 翳바닥→혀바닥, 아랫배→아래배, 가운데손가락→가운데손가락 등이 있고, 棘자가미→턱자개미, 정강이→정갱이, 엉덩이→엉텅이 등은 북한 용어의 특징인 ‘ㅣ’모음 역행 동화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신체 부위명의 경우 한글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데 第五椎節下間(第5-6胸椎)→제5-6가슴등뼈사이, 四椎節下間(第2-3腰椎)→제2-3허리등뼈사이, 五臟六腑→5장6부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머리카락→머리털, 폐→폐, 혀뿌리→혀밑 등, 어깻죽지→어깨박죽, 눈언저리→눈두덩이, 입아귀→입귀 등은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가 심각한 편이 아니므로 남북한의 의사 소통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위명들은 현재 남한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사투리 정도로 인식하여도 무방하다.

4 남북한 한의학 전문 용어의 특징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한 한의학 용어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한에서는 주로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의 국역본이 완전 순우리말로 쓰여져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단지 한글로만 표기하였을 뿐 상당수의 용어가 한자어로 섞여져 있거나 한글과 한자어가 결합된 용어이다.

기존에 활발히 연구되었던 북한 용어의 특징은 한의학 용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남한의 두음법칙이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남한에서 경음으로 표기되는 어휘가 북한에서는 평음으로 표기되거나 남한에서 평음으로 표기되는 어휘가 북한에서는 경음으로 표기된다. 또한, 북한의 한의학 용어에서는 'ㅣ'모음 역행 동화와 전설 모음화된 용어가 많았고,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남북한 한의학 전문 용어의 특징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우선 침구명에서는 한자의 음독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병문에서는 한자어로 쓰여진 남한의 병문을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풀어쓰고 있다.

북한의 병증문에서는 남한에서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고, 북한에서 한자어로 쓰고 있는 병증을 오히려 남한에서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경우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처방명 역시 북한에서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있지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경

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이 경우 한자의 음독이 서로 상이하여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본초명은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가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각 용어들이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북한에서 번역된 본초명이 남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다른 용어로 통용되고 있어 큰 혼란을 준다. 특히 동물·식물·광물명으로 구성된 본초명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로 남북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단위명을 순우리말로 표현하였고, 한 가지의 한자어를 약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에서도 남한은 척관법을, 북한은 미터법을 적용하고 있다.

신체부위명의 경우, 문맥상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질화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또한, 원전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남한의 향약집성방은 한의학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 문헌으로,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쓴 북한의 향약집성방은 일반인들의 가정 의학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한의학 전문용어를 비교하였으며, 남북한의 한의학 관련 용어가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용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용어 의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대응 용어를 명확히 조사하여 파악하고, 표준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유효통, 노중례, 박운덕. 1993. 『향약집성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역. 서울: 일월서각(영인).
 유효통, 노중례, 박운덕. 1989. 『국역 향약집성방』. 신민교, 박경, 맹용재 역. 서울: 영림사. 原典: 『鄕藥集成方』. [발행년 불명].
 김정숙. 1989. 남북한 어휘 비교. 『高麗대어문논집』, 28: 291-304.